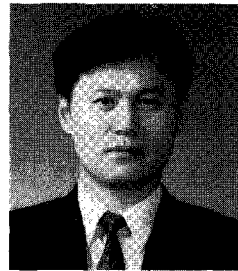


국제 사료곡물 시장의 흐름과 수급전망



김 치 영

한국사료협회 기획조사부차장

I. 국제사료곡물시장의 흐름

'95년도 국제사료곡물시장을 강타한 사료곡물 수급의 불안전은 수입 당사국인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사료곡물 및 축산물 수출입국의 가격구조를 뒤흔들며 지난 '89년이래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저곡가 추세를 고곡가로 반전시키면서 불과 1년전만해도 C&F톤당 125불대에 머물던 옥수수가격을 180불대까지 폭등케하면서 세계곡물시장의 흐름에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수년간 미국농업의 골치덩어리로 부상되어왔던 과잉재고가 해소되고, 향후

경작제한면적까지 철폐할 움직임마저 보이면서 앞으로 전개될 판매자 중심시장 (Sell's Market)에 대한 기대에 차 있으며, 수입국들은 사료곡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비상체제에 돌입케하고 있다.

사료곡물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지난 10여년간 누려오던 저곡가 시대가 무너지면서 두차레나 배합사료가격이 인상되는 등 국내 사료업체와 양축가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같은 곡가폭등을 가져오게한 주요 요인들을 살펴보면 우선 미산 옥수수의 생산감소들 수가 있는데 '95년도 미국의 옥수수 생산지

역인 중서부 콘벨트 지역을 찾아온 기상이변은 파종기에는 잦은 강우로 파종을 지연시켰고, 주요 생육기간인 5~8월 사이에는 건조기후로 생육이 저해되었으며 수확기에는 설상가상으로 서리피해까지 겹쳐 생산감축이 불가피해졌고, 주요 기타사료곡물 수출국들인 캐나다, 호주 등의 사료곡물 수출여력마저 크게 떨어지자 미산 옥수수에 대한 수입수요가 집중되면서 수년 동안 누적되어온 미국의 재고물량을 단기간내 감소시키면서 곡가상승을 주도하였다.

또한 미산 옥수수의 재고감소와 함께 올해 사료곡물의 강세요인중 가장 중요한 요인중의 하나가 미산 옥수수에 대한 대체곡물의 부족이다. 지난 수년동안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사료곡물 수입국들은 미산 옥수수보다 낮은 가격으로 중국산 옥수수나 사료용 소맥, 대맥, 수수, 호밀 등을 사료원료로 많이 이용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이들 기타곡물을 생산하는 국가들이 수출을 중단하거나 또는 재고수준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수출여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오히려 중국, 호주 등의 일부 국가들은 미산옥수수나 수수를 수입해야 하는 수입국의 입장으로 돌변하였다.

또한 '95년부터는 WTO가 출범하는 원년으로 그동안 캐나다 같은 사료곡물 수출국들이 수출용 사료곡물의 수송시 보조해 주던 정부보조금을 중단함에 따라 곡가상승에 일조를 하였고, 지난 십여년간 안정세를 유지해왔던 선임마저도 덩달아 급등세를 보임에 따라 실로 '95년의 국제사료곡물시장은 대형 악재들로 점철된 한해였다.

따라서 지난 십여년동안 국제사료곡물시장에서는 사료곡물수출을 둘러싸고 수출국간의

가격경쟁은 물론 곡종간의 가격경쟁도 격심하였으나 이제 이같은 상황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우며, 어떻게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안정적으로 확보하느냐가 관건이 되어가고 있다.

II. 국제곡물시장의 수급동향과 전망

우리나라에서 배합사료원료로 이용되는 주요 수입사료곡물로는 옥수수, 수수, 사료용 소맥, 호밀, 귀리 등을 들 수가 있고, 또한 기름을 짜낸 부산물인 대두박, 채종박이 있고, 그 밖에도 소맥피, 알팔파, 타피오카, 루핀씨드 등 여러가지 원료들이 있다.

그중 옥수수는 우리나라 배합사료 원료중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서, 특히 양계용 사료원료에 있어서는 계란의 난황과 육계의 피부착색과 관련하여 가장 높은 선호도를 지니고 있다. 이 때문에 과거 양계사료의 비중이 높던 우리나라에서는 사료곡물 수입시 주로 옥수수 단일곡종에만 주로 의존해 왔으나 최근에는 타곡류로도 크게 전환되는 추세에 있다.

이들 곡류별 주요시장 구성현황을 보면 옥수수의 경우 세계 총생산량은 1994/95년 기준으로 약 5.5억톤 이상으로 그중 절반가량이 미국 한 나라에서 생산된다. 국제적으로 교역되고 있는 물량은 총생산량의 약 10%내외이며, 주요 수출국들은 미국, 아르헨티나, 중국, 남아공 등이다. 지난 '84년부터 중국이 수출국으로 부상되어 옥수수 수출시장의 태풍의 눈으로 부각된 바 있으나 국내 수요량이 더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장기적인 수출국으로의 위치는 불안하다. 특히 미국의 수출시장 점유율은 대

단히 높아서 세계 전체교역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수입국들은 일본, 소련, EU, 대만, 한국 등으로 일본이 전체교역량의 25% 가량을 수입하며, 한국도 '95년에는 800만톤 이상의 옥수수를 수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옥수수와 대체관계에 있는 수수의 경우는 연간 약 600만톤이 국제시장에서 교역되고 있으며, 거의 전량이 미국, 아르헨티나, 수단 등에 의해 수출되고 있고 주요수입국은 일본, EU, 멕시코 등이나 최근들어 호주 등의 한발로 인해 수수의 교역량은 크게 감소하고 있다.

또한 사료용으로 수입되는 소맥은 사료용 소맥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입은 저급소맥들이 주로 사료용으로 유통되며 해마다 교역되는 물량과 가격은 일정치 않다. 사료용 소맥의 주요수출국들은 EU, 캐나다, 호주 등이며 이들 3개국이 세계교역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들어 이들 국가의 수출역력은 급격히 감소하여 수출이 거의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다.

또한 대두의 경우는 국내에서 대두를 수입해다가 기름을 짜고 남은 대두박을 사료용 원료로서 이용하거나 또는 대두박을 직접 수입해오기도 한다. 대두는 세계 총생산량이 약 1억1천7백만톤가량이며 그중 50%는 미국에서 생산된다.

국제적으로 교역되는 물량은 전체 생산량의 25%내외이며, 거의 60%를 미국에서 수출하며, 나머지는 남미의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에서 수출하고 있다. 그러나 대두박의 경우는 미국, 인도, 중국, 브라질 등이 주요 수출국이며 그중 인도, 브라질이 한국시장에 대한 수출이

활발한데 이는 인도와 브라질이 자국에서 생산되는 대두를 직접 착유한 후 수출하기 때문이다.

그밖에도 호밀이나 귀리, 보리 등이 사료용 원료로서 이용되고 있으나 이들의 생산량이나 국제교역량이 많지 않으며, 주로 옥수수 등의 대체원료로서 많이 이용된다. 특히 호밀과 보리의 경우 EU 및 캐나다의 시장지배력이 대단히 높은 편이다.

이와 같이 국제사료곡물시장은 미국을 비롯한 몇몇 주요 수출국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그중 미국의 시장지배력은 가장 높기 때문에 대단히 불안정한 독과점적 공급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 때문에 만일 가장 큰 생산국이자 수출국인 미국에서 기상이변이나 농업정책의 변화, 항만 스트라이크 등이 발생할 경우 가격 등락은 물론 수입국의 사료수급이 불안정해진다. 그뿐만 아니라 수요측면에서도 구소련이나 일본의 사료곡물 수입비중은 대단히 높기 때문에 이들 나라의 농업의 흉작이나 기상이변 등은 마찬가지로 국제곡물시장의 가격교란을 가져온다.

결국 많은 양의 사료곡물을 해외에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으로선 사료곡물의 공급불안정에 대한 위험은 항상 따르기 마련이며, 특히 단일원료를 단일국가에서만 수입한다고 할 때 그 위험성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료곡종을 옥수수 단일품목에서 수수, 사료용 소맥, 호밀 등으로 다양화해 나가고 있고, 수입선도 미국, 캐나다, 호주, 아르헨티나 등으로 다변화시켜 국제곡물시장의 불안정한 공급구조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다.

또한 주원료가격의 상승은 주곡원료의 부산물인 소맥피, 채종박 등의 가격까지도 동반상승을 유발시켜 최근에는 이들품목의 가격상승폭이 옥수수를 능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부원료 가격이 상승하고, 대체곡물 등의 수출이 중단되면서 과거 미산 옥수수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매되던 중국산 옥수수, 사료용소맥, 소맥피, 타피오카 등을 이제는 미산옥수수

표 1. 주요 사료곡물 가격동향

(단위 : US\$/톤)

품 목	원산지	'94. 12	'94. 11 현재	전년대비 (%)
옥수수	미국	126	180	143
	중국	120	-	-
수수	미국	124	178	143
	중국	103	-	-
사료용 소맥	캐나다	124	-	-
	EU	-	-	-
사료용 대맥	캐나다	130	-	-
	EU	125	-	-
호밀	EU	-	-	-
대두박	미국(48%)	234	312	133
	미국(44%)	-	-	-
	중국	193	-	-
	브라질	210	265	126
	인도	213	265	124
채종박	캐나다	157	195	124
	인도	104	148	142
	중국	-	145	-
면실박	중국	135	-	-
소맥피	인도네시아	104	140	134
	스리랑카	-	-	-
	아르헨티나	-	-	-
	캐나다	127	165	129
GSP	캐나다	88	125	142
타피오카	태국	100	-	-
알팔파(펠렛)	미국	120	155	129

로 대체해야하다 보니 미산 옥수수 사용량은 전체원료사용량의 45% 수준까지 육박하고 있고, 이로인한 가격인상요인은 단순한 미산 옥수수 가격상승폭만 가지고는 설명될 수 없는 실정이다.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요 사료원료가격은 지난해말 이후 대부분 21~43%씩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미산 옥수수의 가격상승율은 중국산 옥수수나 사료용소맥 등에 대비하면 더 큰폭으로 오른 셈이 된다. 이와 같은 큰폭의 원료가격 상승과 함께 내륙수송비 및 보관비 등의 물류비용 상승과 맞물려 배합사료업체의 수지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어 사료업체는 90년대들어 가장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으며 이와 같은 추세는 향후 국제사료곡물수급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한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되어질 전망이다.

Ⅲ. 국내의 산업의 파급효과

한편 이상과 같이 미국의 가뭄피해로 인해 사료곡물공급 수준이 크게 떨어질 전망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당사자인 미국의 농무성이나 농업전문기관에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번 가뭄으로 인해 생산농가의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크겠으나 미국경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으로 보인다.

그와 같이 볼 수 있는 것은 미국의 생산량이 크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곡물수출량 확보에는 크게 지장이 없고 더더욱 국내 소비용 확보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은 지난 수년동안 옥수수의 과잉재고에 시달리면서 공급수준을 적정량으로 조정하기 위해 경작면적을 제한하는 등 엄청난 보조금을 지불해 왔으며 금번 생산감소로 인해 수년만에 커다란 재정지출없이 생산을 감축하고, 잉여재고를 처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났다.

이미 세계 곡물가격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시카고 곡물시장의 가격은 1983년의 대열파와 1988년의 대가뭄시 기록했던 당시의 가격수준까지 급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입국의 입장에선 국제 곡물가격이 급등하게 되면 국가경제적으로는 수입부담이 늘게 되고, 개인기업은 채산성이 어려워져 원가인상 압박을 받게되며 결국은 최종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되게 된다.

가조사국이 분석, 발표한 「미국 곡가상승의 국내파급효과」에 따르면 1988년 7월 19일 기준 추가부담액은 2.5억달러로 추정되었고, 만일 10%가 더 상승할 경우에는 3.3억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었다.

또한 도매물가는 당시의 현시세보다 10% 더 상승할 경우 0.2%의 추가상승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었다.

결국 국제 곡물가격의 급등은 불가분 국내산업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으며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되는 산업이 바로 축산사료 산업인 것이다.

IV. 고곡가 시대의 대응책

곡가급등 현상이 지속되면서 향후 미국의 축사료 및 사료곡물가격의 급등은 물론 주요 수입

량에 대해서는 고가구매가 불가피했으므로 벌써부터 일부 사료회사에서는 내년도 사료가격에 대한 논의가 일고 있다.

지금까지는 국제곡물가격이 상승하였어도 제도적인 지원을 통해 비교적 낮은 폭의 배합사료 가격조정 및 내부경영합리화 등을 통해 흡수해 나갔으나, 이제는 원료가격이 전년대비 약 45%씩 상승하는 현실에서 사료회사들도 원가절감만 가지고 사료가격인상 압박을 감내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 사료업계에서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사료용 원료의 관세인하와 배합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확대적용 등을 모두 들어준다 하더라도 원가인하 요인은 10%에도 못미치겠지만 이같은 정책지원을 통해 어느정도 가격상승폭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정부의 정책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또한 양축가들도 이와 같은 추세가 내년까지 지속된다면 우리나라의 축산환경은 정부의 정책지원을 통한 생산비 절감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새로운 여건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양축가들은 이제부터라도 축산조정을 위한 준비기간으로 삼고, 새로운 생산비 증가추세에 대비해 나가야 한다. 앞으로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배합사료가격 상승에 대비하여 양축가들이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는 길은 스스로 적정규모를 유지하여 축산물 가격하락을 방지하여 수익을 증대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아직 지분을 고치기도 전에 소나기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축산업계에는 새로운 원가상승국면에 대비한 감량경영과 축산물 가격의 회복을 통해 소나기를 피할 시간적 여유는 있다고 본다. **양계**